

2000년 이후 패션에 나타난 미래적 이미지의 개념에 관한 연구

김 윤 희

한남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A Study of the Concept of Futuristic Image in Fashion Since 2000

Yoonhee Kim

Professo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Hannam University
(2007. 11. 29 투고)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fine the concept of the futuristic image in fashion since 2000. In this study, earlier studies of the futuristic images in the fashion are analyzed and it is discovered that the most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the futuristic images are the cosmic space and virtual reality. An analysis of actual data of the futuristic images of the fashion since 2000 produces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since 2000 the futuristic fashion to convey the image of space tends to be minimalist, taking H or A silhouette and using white, silver, or other vivid colors.

Second, since 2000 the image of virtual reality is often expressed in the fashion of futuristic image as female fighters or vampires of the future who mostly wear pants suit or skirts that expose the body line. Materials of advanced technology or shiny leather are often used and dark colors including black are dominant in these images.

Third, when the space image is expressed, the androgynous youth is emphasized. However when female fighters or vampires of the future are shown, sexual image of gloomy atmosphere is often stressed.

Fourth, the fashion of futuristic image since 2000 takes up the space age look of the 1960s and the techno-cyber look of the 1980s and the 1990s. However their internal meanings are lost and only external forms are repeated. In sum, the current fashion of futuristic image emulates the past look of the fashion which was circulated as futuristic images and may be considered as a result of combination of futuristic image and retrospective image.

Key words: futuristic image in fashion(패션의 미래적 이미지), space image(우주 이미지), virtual reality image(가상 현실 이미지), retrospective image(복고 이미지)

I. 서론

‘지금’은 인류가 막연히 예측해 오던 미래이다. 미래를 다루는 다양한 저술과 예술작품에서 2000년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으며, 2000년을 전후하여 인류의 미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더욱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인류 역사의 한 분절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던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다가올 시대인 미래에 대한 저술과 예술작품은 여전히 등장하고 있으며, 세계 패션 컬렉션에서도 미래적 이미지가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미래에 대한 연구는 다가올 시대의 인류의 달라질 생활 환경에 대한 대비의 차원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결국 미래 연구는 현재의 인류의 선택이나 준비, 노력 여하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신념에서 출발하였다.

최근의 패션 트렌드 관련 자료에서 미래 이미지에 대한 연구 및 관심은 2007년의 주요 패션 경향으로 퓨처리즘을 꼽고, 1910-1930년대, 196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패션에 대해 다루거나¹⁾ 2007년 S/S 시즌의 여성복 주요 경향 여덟 가지 가운데 두 가지를 “미래의 전사”, “우주의 숙녀”로 꼽으면서 미래적 이미지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음에서 반증이 된다.²⁾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 여러 매체에서 2007년 S/S 시즌 컬렉션의 주요 경향 가운데 하나인 ‘미래주의’, ‘퓨처리즘’을 해석하면서 이 경향 등장의 주요 배경으로 과거인 1960년대 혹은 1980, 1990년대 등 20세기 패션을 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2000년 이후의 미래적 이미지 패션에서 표현하고 있는 패션 이미지를 고찰하고, 시간상 현재의 다음에 오는 시간인 미래의 패션 표현에 있어서 시간의 문제는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패션의 미래적 이미지의 개념 구조를 밝히고자 한다.

시기적으로는 2000년 이후 패션 분야를 포함한 사회문화 전반에서 미래에 대한 연구가 특히 활발하였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2000년 이후를 최근 패션으로 보고 연구 대상 시기로 삼고자 한다.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국내외의 사회 문화적 변화와 관련된 서적과 신문, 잡지 등의 대중 매체

의 내용을 주요 자료로 삼았다. 실증 자료는 2000년 이후 최근까지의 국내외 패션 잡지나, 패션 컬렉션,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패션 관련 자료, 트렌드 관련 자료를 이용하였다.

II. 미래 개념의 논의와 미래적 이미지 패션의 주요 개념

미래에 대한 개념은 인류의 역사에 걸쳐 사회 문화적 환경에 따라 달리 형성되어 왔다고 할 수 있으며, 인류는 항상 미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미래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본 절에서는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미래의 개념을 살펴 보고, 미래적 이미지 패션에 대한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하여 2000년 이후 미래적 이미지 패션 분석에 이용할 미래적 이미지 패션의 주요 개념을 도출해 내고자 한다. 또한 미래적 이미지 패션의 주요 개념 설명과 관련하여 1960년대, 1990년대 패션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1. 미래 개념의 논의

미래(未來)의 사전적 의미는 첫째, (현재를 기준하여) 아직 다가오지 않은 때, 장래, 둘째, 불교에서 삼세(三世)의 하나, 곧 죽은 뒤의 세상, 내세, 셋째, 앞으로 있을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어법을 의미한다.³⁾ 일반적으로 미래는 첫째와 셋째의 의미로 많이 쓰인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때 전제는 시간을 과거-현재-미래로 이어지는 선적 개념으로 보는 것으로, 성 어거스틴의 말대로 시간은 삼중적 현재로서, 우리가 겪고 있는 것으로서의 현재, 현재의 기억으로서의 과거, 현재의 기대로서의 미래라는 것이다.⁴⁾ 아직 다가오지 않은 때인 미래를 예측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며, 점술, 예언, 미래학, 공상과학 소설, 유토피아론 등이 그것이다.⁵⁾ 고대에는 미래의 일을 미리 밝히는 것은 마술과 종교의 영역에 속하는 금기로, 그 금지된 영역을 들여다 보고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은 점쟁이, 주술사, 예언자, 사제, 마술사들 뿐이었다.⁶⁾ 그러나, 르네상스 시대인 1516년,

정치가 토마스 모어는 정치적 공상 소설인 <유토피아>로서 새로운 미래담론을 펼쳐 나갔는데, 원래 유토피아란 그리스어 “ou topos”에서 유래한 “어디에도 없는 곳”을 의미한다. 어디에도 없는 곳을 배경으로 하는 미래에 대한 서술은, 토마스 캄파넬라의 <태양의 도시>(1602년)와 프란시스 베이컨의 <새로운 아틀란티스>(1626년) 등의 유토피아 소설 속에서 미래는 지리적 위치가 모호한 신비한 가상 공간을 배경으로 이상사회와 외양과 정치적 형태, 생활 방식 등을 통해 묘사된다.⁷⁾ 유토피아를 꿈꾸는 풍조는 18세기 문화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고, 19세기에는 사회주의에 바탕을 둔 완벽하고 질서있는 전체주의 사회와 혁신주의에 더 중점을 두는 유토피아론이 유행했다. 그러나 20세기 작가들은 전체주의의 공포를 비난하기 시작하였고, 에브게니 자마이틴의 <우리> (1920년), 조지 오웰의 <1984년>(1949년) 등에서 그리 멀지 않은 미래의 반유토피아 사회들을 그려내고 있었다.⁸⁾ 막연히 앞으로 다가올 때라는 뜻의 미래는 각자마다 얼마나 먼 미래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있느냐에 따라 미래의 모습을 유토피아로, 혹은 반유토피아로 그리게 되며, 이는 미래를 예측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는 시간 차이로 인한 개념의 차이이다. 시중에 나와 있는 미래 예측서들은 각각 10년에서부터 1000년 뒤의 모습까지 예측하기도 한다. 물론 가까운 미래에 대한 예측은 지금 시점에서 근거를 가지고 예측하는 것으로 비교적 큰 정확도를 지닐 것이고, 보다 먼 미래에 대한 것은 문학적 상상력으로 작성한 시나리오에 그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미래에 대한 관심이나 연구는 대개 시간적 차원에 사회, 현상적 차원이 더해진 미래를 대상으로 한다. 예컨대 21세기에 대한 관심은 단순히 다음 세기의 도래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기에 맞게 될 인류의 생활 환경이나 사회 제도, 국제 관계 등에 대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미래 연구는 현재의 선택이나 노력 여하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신념에서 출발한다.⁹⁾ 미래 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가 다양한 대안들로 가득찬 거대한 세트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였으

며,¹⁰⁾ 그 대안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이 바로 과학이다. 자크 아탈리가 미래에 다가올 사회로서의 유토피아에 대하여 얘기하면서 “유토피아에는 위인을 위한 자리가 없다. 있다면 과학자들을 위한 자리가 있을 뿐이다. 과학자들은 새로운 것을 만들도록 허락된 유일한 특권층이다.”¹¹⁾라고 표현한 것과 같이 지난 1세기를 돌아보았을 때 미래로의 이행이나 미래 시나리오 형성에는 과학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20세기가 시작될 무렵, 기술적 발전의 성과들은 작은 도시와 마을들은 물론 사람들의 습관과 사고방식에까지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인간과 동물의 노동력 대신 기계를 이용해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산업혁명의 탄생이 예고되었다. 산업혁명은 이미 18세기 말에 영국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새로운 에너지원을 인간이 마음대로 다룰 수 있게 되자 산업화가 아주 빠르게 진행되었다. 새로운 기술들이 일상생활의 수준까지 높여주면서, 여러 가지 과학적 현상에 대한 사람들의 호기심도 커졌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만족할 수가 있었다.¹²⁾ 그런데, 가능해진 과학적 설명으로 인류의 꿈은 점차 사라지고 있었고, 오랜 세월에 걸친 유토피아를 향한 인류의 꿈 역시 결정적 종말을 맞고, 20세기를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할 정도로 역사적 순간이 있었는데, 바로 1960년대의 과학발달의 성과인 달 탐험이다. 1961년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 우주여행을 하고, 1969년 미국의 닐 암스트롱과 에드워드 앤드루이 달 위를 걸었던 달 탐험으로 인류의 꿈에 종말을 가져오게 되었고, 막연한 미래인 서기 2000년에 대한 신비는 사라지고, 현실이 대신 들어서게 되었다.¹³⁾

인류의 미래에 대한 생각은 유토피아나 반유토피아에 대한 생각, 곧 상상으로 이어져왔으나, 1960년대의 달 탐험으로 인해 인류가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에 보다 구체적인 변화가 있었고 이후 기술 혁신과 기술 발달에 의한 시대 구분이 가능해질 정도로 과학, 기술은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2. 미래적 이미지의 패션에 대한 선행 연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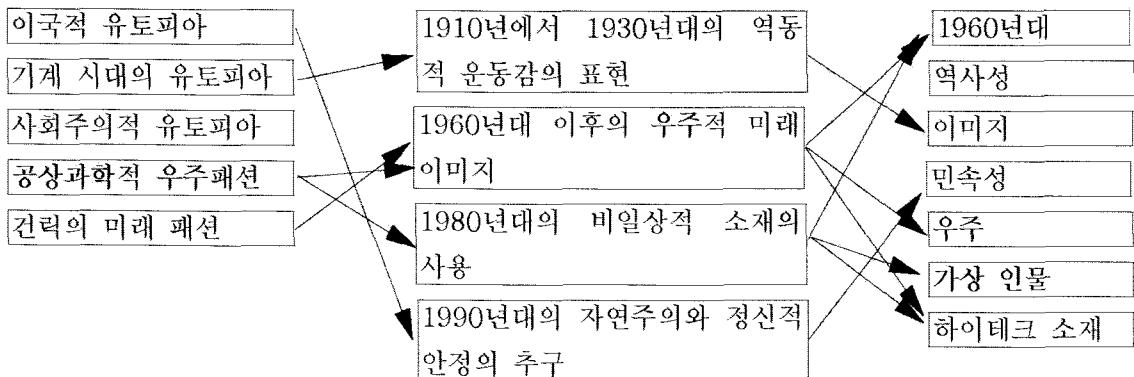
미래적 이미지의 패션에 대한 선행 연구는 20세기의 미래적 패션에 대한 사적 연구, 20세기의 미래주의 예술, 테크놀로지 아트 등과 패션의 상관 관계 연구, 20세기 패션과 미래적 이미지의 현대 패션과의 연관성을 고찰하는 연구, 미래적 이미지의 현대 패션에 대한 디자인 분석 연구 등 다양한 연구 방향을 보였다. 이 가운데 본 연구의 연구 방향과 관련이 있는 사적 연구와 20세기 미래적 이미지 패션에 대한 디자인 분석에 대한 연구를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그리고, 20세기 패션사에 나타난 미래 이미지를, 이국적 유토피아(푸아레의 동양풍 패션), 기계 시대의 유토피아(미래파 패션), 사회주의적 유토피아(샤넬의 ‘가난한 룩’), 공상과학적 우주 패션, 건력의 미래 패션으로 분류한 김성복의 분류와 20세기 이후 미래적 이미지 패션의 대표적 표현 특성을 1910년에서 1930년대의 역동적 운동감의 표현, 1960년대 이후의 우주적 미래 이미지, 1980년대의 비일상적 소재의 사용, 1990년대의 자연주의와 정신적 안정의 추구로 분류한 김예형과 조정미의 연구, 그리고, 미래적 이

미지 패션 디자인에 표현된 디자인 발상으로 1960년대, 역사성(로마, 그리스), 이미지(미니멀, 로맨틱, 레이디 라이크 룩, 스포티 룩), 민속성(오리엔탈) 우주(SF, 우주), 가상 인물(미래 전사, 뱀파이어), 하이테크 소재 등의 7가지를 꼽은 지정은의 연구에서 나온 주요 단어들로 <도표 1>과 같이 미래적 패션 이미지의 개념들을 연속적 흐름으로 표시하였다. 연구자나, 연구 대상 시기에 따라, 혹은, 20세기 초반의 미래주의 복식 디자인이나, 20세기 후반의 미래적 패션 디자인 가운데 어느 것의 설명에 치중하는가에 따라 제시하는 개념이 달음을 알 수 있으나, 1960년대, 우주, 공상과학, 가상 인물 등의 개념이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그 외 역사, 기계, 이국적, 비일상적 등의 어휘도 미래적 패션 디자인 설명을 위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아직 다가오지 않은 때’를 의미하는 미래의 정의를 고려하면서, <도표 1>에 나타난 다양한 개념들 가운데 시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대표적인 어휘를 다시 선택하였다. 즉, 미래를 표방하지만, 실제적으로는 1960년대에서 그리던 미래인 우주, 앞으로 다가올 미래로서, 기술에 의해 미리 제공되는 가

<표 1> 미래적 이미지의 현대 패션에 대한 선행 연구

	연구자	연구 제목	연구 방향	분석 사항
사적 고찰	김성복(1999) ¹⁴⁾	- 20세기 패션 속에 나타난 미래 이미지의 역사: 패션과 미래 이미지의 상관성 연구	20세기 패션사에 나타난 미래 이미지 향적 패션의 예를 분석하여 미래 담론 속의 패션의 관계를 밝힘	20세기 패션사에 나타난 미래 이미지- 이국적 유토피아, 기계 시대의 유토피아, 사회주의적 유토피아, 공상과학적 우주패션, 건력의 미래 패션
	김예형, 조정미(2003) ¹⁵⁾	- 현대 패션의 미래적 이미지에 관한 연구	20세기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한 패션에서의 미래적 이미지를 시대순으로 규명하고 그 변화 과정 연구	1910년에서 1930년대의 역동적 운동감의 표현, 1960년대 이후의 우주적 미래 이미지, 1980년대의 비일상적 소재의 사용, 1990년대의 자연주의와 정신적 안정의 추구
현대 디자인 분석	박윤정, 양숙희(1998) ¹⁶⁾	- 복식에 표현된 미래주의 양식과 그 변화에 관한 연구	미래주의 예술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 보고, 이것이 현대 의상에 미친 영향 고찰	현대 의상에 나타난 미래주의적 경향- 역동성, 비대칭성, 조형성, 기계미
	문신애, 김문숙(1999) ¹⁷⁾	- 20세기 스페이스 에이지 패션과 테크노-사이버 패션의 패러다임적 특성에 관한 연구	1960년대의 스페이스 에이지 패션과 1990년대의 테크노 사이버 패션 비교	내적 성향- 미래지향성, 초현실성, 반문화성 외적 형태- 소재의 혁신적 선택, 역동적 움직임, 다양한 효과
	지정은(2006) ¹⁸⁾	-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퓨처리즘의 디자인 특성과 트렌드 분석	현대 퓨처리즘 패션에 표현된 디자인 발상 분석	퓨처리즘에 표현된 디자인 발상- 1960년대, 역사성, 이미지, 민속성, 우주, 가상 인물, 하이테크 소재



〈도표 1〉 선행 연구의 주요 개념 상관도

상적, 기술적 미래인 가상 현실로 크게 양분하였다. 제시된 개념들 가운데 우주는 미래 연구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언급되고 있는 주요 단어이고, 가상 현실 역시 20세기 후반의 패션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키워드이다. 우주와 가상현실의 분류에는 인간과 기계의 관계에 의한 미래 이미지의 분류나, 유토피아 혹은 디스토피아로 보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미래 이미지의 분류는 포함하지 않고, 시간을 중요한 분류 근거로 삼았다.

3. 1960년대의 미래적 이미지 패션

1969년 인류 최초로 미국인 우주비행사 앤스트롬과 올드린이 우주선에서 나와 달에서 걷는 모습이 TV를 통해 생중계되었으며, 우주인들의 짧게 자른 머리, 다섯시 방향으로 생겼던 그림자, 은색의 우주복으로 인해 가죽 블루종과 조종사용 안경이 유행하였다.¹⁹⁾

우주 시대의 시작은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 변화를 가져 왔다. 1960년대의 히피 패션에 반대하던 짧은 이들의 하위문화인 비트니(beatnik)들은, 공상 과학 소설에 심취하여 미래적 패션과 라이프 스타일을 시도하였다. 당시 비트니들은 달 탐험을 계기로 유토피아적인 요소를 가지고, 기술에 의해 완벽하게 통제되는 우주 밖의 라이프 스타일을 소개하고자 하였다.²⁰⁾ 당시 기술, 과학의 성과로 인해 사람들은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며, 이는 짧은이가 주도하던

1960년대의 사회 문화적 흐름과 맞물려 전반적인 문화를 경쾌하고 밝게 만들 수 있었다.

패션에서도 1950년대의 성숙한 여성미를 찬양하던 시기에서 보다 짧고 미래 지향적인 의복이 선보이기 시작하였다. 미래주의 패션으로 최초로 대서특필된 인물은 앙드레 꾸레주였다.²¹⁾ 앙드레 꾸레주와 메리 퀸트는 미니 스커트를 소개하였고, 꾸레주의 미니 스커트는 기하학적 형태와 가죽이나, 에나멜 가죽 등의 힘이 있는 재료로 만들어져서 느슨하게 몸에 맞고, 허리는 드러나지 않았다. 그는 바지를 여성용 기본 의복으로 소개하였는데, 남성복에서 오는 형태가 아니라, 여성에 잘 맞도록 엉덩이에 걸쳐지는 날씬하고 직선적인 형태였다.²²⁾ 당시 미니스커트는 혁신적인 것이었고, 바지 정장은 자유의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²³⁾ 올인원의 팬츠 수트, 우주복 스타일의 모자류,²⁴⁾ 문 부츠, 고고 부츠, 테니스공과 같은 모양의 선글라스 등이 나왔다.²⁵⁾ 흐린 날씨에도 선글라스를 머리에 꽂거나 드레스 바깥쪽에 꽂고 다녔고, 선글라스는 1960년대 가장 중요한 액세서리로 부상했다.²⁶⁾

꾸레주는 옵아트 모드와 우주복 룩이 혼합된 것으로 흰색과 은색을 선호했으며,²⁷⁾ 파코 라반 역시 1960년대의 미래적 이미지 디자인의 주요 디자이너로서, 새로운 의복 재료인 플라스틱과 금속의 판으로 만든 원피스를 선보였다.²⁸⁾ 파코 라반의 작품은 ‘유토피아적’이라고 평가되었으며, 당시 기자들은 ‘플라스틱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하였다.²⁹⁾

우주복 스타일의 미래적 이미지의 패션에서 또 하

나 꿈을 수 있는 특징은 그것이 유니섹스 의복이었다는 점이다. 1967년에 이르러서는 모든 컬렉션에서 남녀가 모두 입을 수 있도록 디자인된 유니섹스 의복이 나왔다.³⁰⁾ 미래주의 영화나 텔레비전 쇼, 패션 쇼에서 남여 구분없이 유니타드, 점프수트, 튜닉, 레깅스를 입었다. 피에르 카르뎅은 남여 모두에게 둥근 헬멧, 낮은 굽의 신발, 플라스틱 눈 가리개, 단단한 립(rib) 조직으로 짜진 유니타드, 지퍼가 있는 점프수트를 입혔다.³¹⁾

1960년대 달 탐험에 힘입어 나타났던 미래적 디자인의 패션, 스페이스 에이지 룩에서는 앙드레 꾸례주, 파코 라반, 피에르 카르뎅의 미래적 디자인 의복 발표가 특히 중요하였다. 이들은 당시 유행하였던 미니 스커트와 팬츠 수트를 새로운 소재를 사용하여 우주복 스타일의 패션으로 표현하면서 유니섹스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내었다.

4. 1990년대의 미래적 이미지 패션

1980년대 주요 서양국에서 보수적 성향의 정권이 집권하였고, 군축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1991년 벽두를 장식한 걸프 전쟁, 소련의 해체, 미소 양국을 중심으로 하는 냉전 종식 이후 세계 곳곳에서 국가간, 민족 간 세력 다툼이 잇따랐다.

1980년대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베이비 봄 세대 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게 됨에 따라, 이 시기 여성들의 파워 수트는 1980년대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이 시기의 남녀의 사회적 지위를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심이 들어간 넓은 어깨의 파워 수트와 큰 인조 액세서리는 1980년대 패션의 특징 가운데 하나였다.³²⁾ 이러한 1980년대 패션의 과장된 형태와 1980년대의 광택 있는 미끈미끈한 질감의 하이테크 소재를 이용하고, 인체의 선을 드러내는 패션인 글리터 룩³³⁾의 이미지는 1990년대의 테크노 사이버 패션에서 혼합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는데, 테크노 패션은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 첨단 기술의 미래 이미지에서 삶의 의미와 기쁨을 찾은 하위문화 집단들로부터 시작되었다.³⁴⁾ 테크노 패션과 함께 1990년대 들어 젊음의 찬양과 강인한 여성상에 대한 선호는 1996년 출시된 멀티 미

디어 게임 툴 레이더의 여 주인공 라라 크로포트가 표현하는 여성적이면서도 거칠이 없는 여전사 모습의 선풍적 인기로 이어졌다.³⁵⁾ 강한 여전사의 이미지와 테크노 이미지의 결합은 1996년 S/S 시즌의 알렉산더 맥퀸 컬렉션에서 선보인 중세 기사를 연상시키는, 스테인레스 스틸 코팅 직물의 의복, 1999년 F/W 시즌의 컴퓨터 회로 프린트의 의복과 우울한 분위기의 화장 등을 통하여 미래 과학 기술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비관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듯 부정적으로 표현된 미래적 이미지의 패션은 1960년대의 미래적 이미지 패션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이다. 1960년대의 스페이스 에이지 룩을 통해 당시의 젊은이 중심 문화에 힘입은 경쾌하고 미성숙한 젊음이 표현되었다면, 1980, 1990년대 이후 세기말, 세기초의 동요 속에서 테크노 패션은 미래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함축하고, 퇴폐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한 여성미가 어둡게 표출되었다. 테크노 사이버 패션은 1960년대의 스페이스 에이지 룩에 기초를 두어 하이테크 직물과 사이버 룩으로 표현되었고, 광택 있는 소재를 사용하여 전위적인 면을 강조하고, 새로운 조형미를 제시하며 테크놀로지와 패션의 조합에서 비롯되어지는 미래주의 패션의 가능성을 열었다.³⁶⁾ 1990년대 중반 이후 테크노 패션은 단순한 실루엣의 스포티한 모던 테크노로 전개되었고, 사이버 폭크는 초기에는 기술의 부정적 결과에 대한 회의를 표현했으나, 21세기 정보통신 문명에서 창조성과 정신적 우월성을 갖는 집단이라는 긍정의 의미를 변하였다. 사이버 폭크 스타일은 고무 튜브, 가스 마스크, 전자회로, 홀로그램, 로봇 팔 등 하이테크 소재의 산업 폐기물을 결합하여³⁷⁾ 미래적 이미지를 창조하였다.

1960년대와 1980, 1990년대의 미래적 이미지 패션은 표현하고자 하는 미래에 대한 생각과 미래의 어떤 요소가 의복 속에 녹아 있는가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III. 2000년 이후 미래적 이미지의 패션

본 절에서는 2000년 이후 나타난 미래적 이미지의 패션을 앞 절에서 분류한 우주, 가상 현실의 두 가지 개념으로 분류, 각 이미지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각 개념의 비교 논의를 통하여 미래적 이미지 패션의 개념 구조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실증적 연구를 위한 자료는 2000년 이후 최근까지의 국내외 패션 잡지와 패션 전문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패션 컬렉션 자료를 이용하였고, 패션 디자인 전공자 2인이 참여하여 2000년 이후 최근까지 패션 컬렉션에서 미래적이라고 인식되는 의복 사진 총 113개를 선택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 가운데 1차적으로 미래적 디자인으로 분류되었으나, 여러 가지 디자인 테마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남으로써 분류하기 힘든 경우를 제외하고, 총 100개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1. 2000년 이후 미래적 이미지의 패션에 대한 실증 연구

미래적 이미지 패션 설명을 위한 항목 가운데 우주, 가상 현실의 두 가지 개념에 대하여 특징을 분석하였다.

1) 우주

우주 이미지를 표현한 미래적 이미지 패션은 가상 현실의 항복으로 분류되는 사진들 보다 많아서, 전체 100개 가운데, 54개로 나타났다. 2000년 S/S 시즌 준 야 와타나베와 로에베, 2003년 F/W 시즌 마크 제이콥스, 2007년 S/S 시즌 구찌의 컬렉션이 대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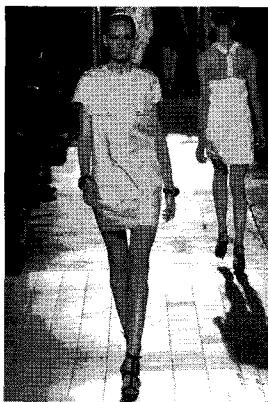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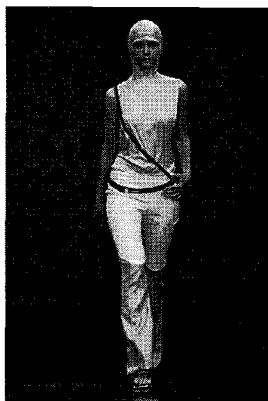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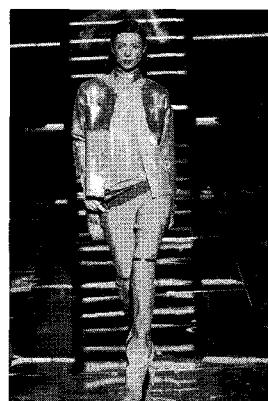
2000년 이후 나타난 패션의 미래적 이미지에서 우주적인 이미지의 의복 가운데 마크 제이콥스의 2003년 F/W 시즌 컬렉션에서 디자이너는 1990년대 말을 지나 2000년 초를 맞이하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건강하고 젊은 이미지가 만연했던 1960년대의 짙고, 건강한 유니섹스 이미지를 차용하였다.(그림 1) 애시드 컬러(acid color)의 사용과 인체의 선을 드러내지 않는 직선적인 의복 형태는 젊은 이미지 표현에 적

합하였다. 2007년 랑방, 로에베, 글로에 등의 컬렉션에서도 젊은 스페이스 에이지 룩이 발표되었다. 2007년 랑방은 형광 노랑, 형광 분홍색의 광택있고, 힘있는 옷감을 사용하여, 1960년대 분위기의 짙은 미니 원피스를 선보였다. 이는 1960년대 당시의 꾸레주와 워드의 미니 원피스를 연상시키는 의복으로, 1960년대 패션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다.(그림 2) 또한 짙은 미니 원피스에 은색의 장식적 무늬를 가한 구찌의 디자인(그림 3)도 우주적 이미지를 전달하는 디자인이다.

그런데, 2000년 이후 컬렉션에서 미래적 이미지의 팬츠 수트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는 스페이스 에이지 룩에서 주로 디자인되는 패션 아이템이다. 2001년 트리스탄 웨버는 우주복 스타일의 의복을 발표하였는데, 색채 사용은 최대한 절제하고, 인체의 곡선을 드러내는 소재를 사용하였다. 또한 그가 사용한 머리를 많이 덮는 후드는 미래적인 느낌을 주는 디자인 디테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그림 4) <그림 5>는 지안프란코 페레의 미래적 이미지 패션으로서, 미래 이미지 표현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은색을 가죽 재질에 그라데이션(gradation)으로 표현하였다.

2000년 이후의 패션 컬렉션에서 볼 수 있는 미래적 이미지 패션 가운데, 우주를 키워드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는 패션은 1960년대의 패션 디자인 요소를 보여준다. H. A. 실루엣에 절제된 디테일, 1960년대에 쓰인 것과 같은 밝고 힘있는 색채와 힘있는 재질을 주로 쓰고 있다. 이 분류에 들어가는 패션 디자인 이미지는, 1960년대의 젊은이 중심의 문화를 반영하듯, 전체 분위기 역시 경쾌하고 소녀답게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2000년 이후의 사회문화적 배경, 과학 기술의 발전 상황을 볼 때, 2000년대의 우주적 미래 이미지 패션은, 우주 시대에 대한 기대 반영이라는 1960년대와 같은 뚜렷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주복 스타일의 패션이 유행하였던 1960년대 패션의 재해석이다. 즉, 1960년대의 우주복 스타일의 패션은 인류에게 새로운 우주 시대가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었지만, 지금의 시점에서 우주복 스타일의 패션은 현재의

<그림 1> 2003년 F/W 마크 제이콥스³⁸⁾<그림 2> 2007년 S/S 랑방³⁹⁾<그림 3> 2007년 S/S 구찌⁴⁰⁾<그림 4> 2001년 S/S 트리스탄 웨버⁴¹⁾<그림 5> 2007년 F/W 지안프랑코 페레⁴²⁾

기대감의 반영이 아니라, 1960년대의 기대감을 반영하는 것이다. 현재에 1960년대의 의미는 미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인류가 이미 경험한 바 있는 '미래적' 사건이라는 역설적 전제를 가진다.

2) 가상 현실- 미래 전사와 뱀파이어

실증 자료 사진 가운데 46개가 가상 현실의 이미지로 미래 전사 혹은 뱀파이어를 표현하는 패션의 미래적 이미지로 나뉘어져 나타났으며, 이는 미래적 이미지 패션의 디자인 발상 가운데 하나인 가상 인물을 미래 전사와 뱀파이어로 나눌 수 있다고 한 정은의 연구 결과가 뒷받침해준다.⁴³⁾ 가상 현실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는 패션 컬렉션은 2001년 S/S 시

즌 트리스탄 웨버, 2002년 F/W 시즌 알렉산더 맥퀸, 2003년 F/W 시즌 루이 비통의 컬렉션이 대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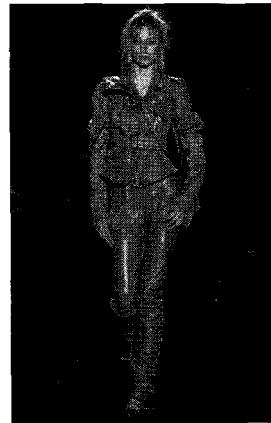
미래 전사의 이미지는 “갑옷 비늘이 덮인 튜닉과 코트에서 우주 시대와 중세풍의 느낌을 끌어”⁴⁴⁾ 낸다. 미래의 전사 표현에는 오히려 시대를 거슬러 중세의 기사 이미지를 차용하기도 한다.(그림 6) 중세의 어둡고 암울한 분위기는 중세 갑옷에서 온다고 할 수 있는데, <그림 7>, <그림 8>도 중세적인 이미지를 암시하고 있다. <그림 7>은 2007년 가례쓰 푸의 컬렉션 가운데 하나로서, “런던 패션의 위대한 1980, 1990년대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⁴⁵⁾는 평을 받은 바 있다. 20세기 패션사에 있어서, 1980년대의 글리터 룩, 1990년대의 테크노 사이버 패션은, 2000년 이후의 가상 현실을 표현하는 미래적 이미지 패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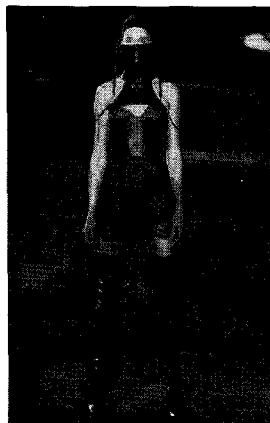
〈그림 6〉 2003년 F/W 루이 뷔통⁴⁶⁾



〈그림 7〉 2007년 F/W 가레쓰 푸⁴⁷⁾



〈그림 3〉 2003년 F/W 지안프랑코 페레⁴⁸⁾



〈그림 9〉 2002년 F/W 알렉산더 맥퀸⁴⁹⁾



〈그림 10〉 2003년 F/W 라파엘 로페즈⁵⁰⁾

근원을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2003년 F/W 시즌의 지안프랑코 페레의 가죽 소재의 작품(그림 8)은, 여전사의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으며, 2002년 F/W 알렉산더 맥퀸의 작품에서는 얼굴을 덮는 두꺼운 가면과 머리에 딱 맞는 모자를 쓰고, 검정색의 직물로 디자인한 의복을 선보임으로써, 마치 비현실적인 게임이나, 영화에서 보는 듯한 이미지를 창출해 내고 있다.(그림 9) 미래 전사의 디자인에는 가죽으로 된 원피스 형식의 바지 디자인이 많이 나오고 있으며, 다양한 지퍼나 끈 등의 디테일이 사용된다.

〈그림 10〉의 라파엘 로페즈는 공상 과학 영화이나 나올 법한 미래적인 의상을 선보였는데,⁵¹⁾ 인체의 선이 드러나는 형태와 반짝이는 메탈릭 소재를 주로

사용하였다. 라파엘 로페즈의 2003년 F/W 시즌 컬렉션은 전형적인 뱃파이어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즉, 공격적 여성성을 표현하는 미래 전사 보다, 뱃파이어 이미지에서는 여성의 성적 이미지가 퇴폐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미래적이면서 아방가르드하게 표현되는 미래 전사는 전설적인 인물의 묘사로 어둡고 우울한 분위기로 나타나는 반면, 뱃파이어는 미래 전사에 비하여 더욱 강렬한 성적 매력을 강조하고 있다.

미래 전사 혹은 뱃파이어의 표현을 위해서는 인체를 드러내는 실루엣이 많으며, 검정색이나, 검정에 가까운 색을 사용하고, 가죽, 광택 있는 인조 가죽 사용이 많다. 과장되고, 어두운 분위기로 연출하기 위

해 게임에서 등장하는 듯한 비현실적 소품, 예를 들어 투구와 같이 머리에 쓰는 액세사리를 많이 사용한다.

가상 현실 속의 미래 여전사나, 뱃파이어 이미지 패션의 외적 형식은, 1980, 1990년대의 테크노 사이버 패션의 외적 형식을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체의 선을 드러내는 형태, 하이테크 직물, 미끈미끈한 질감의 소재, 검정색을 기본으로 하는 어두운 색채 등의 디자인 외적 형식을 보인다. 그런데, 테크노 사이버 패션에서 보여주고 있는 미래 전사의 이미지의 배경에는 중세 시대의 기사 이미지가 있다. 2000년 이후의 패션에서 나타나는 가상 현실 이미지 역시 우주적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미래적인 이미지를 표현한다고 하지만, 이미지의 근저에는 중세적 이미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상 현실에서 표현되는 미래적 이미지는 가상 현실이라는 단어 자체가 의미하듯이 사실상 기계가 제공하는 가상 현실 속에서의 현실 혹은 미래로, 시공간을 넘나들면서 미래적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2. 2000년 이후의 패션에 나타난 미래적 이미지에 대한 논의

2000년 이후의 패션에 나타난 우주와 가상 현실의 두 가지 대표적 미래적 이미지를 고찰하였다.

첫째, 2000년 이후 우주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미래적 패션의 실루엣은 직선적인 H, A 실루엣인 경우가 많으며, 대개 짧은 미니 스커트, 미니 드레스의 형태로 나타나거나, 몸에 붙는 좁은 실루엣의 바지로 표현된다. 디테일이 절제되는 미니멀한 형태를 보이며, 또한 선명한 색채, 흰색, 은색이 주된 색상으로 많이 쓰이고 있었다. 이는 1960년대의 스페이스 에이지 룩의 외적 형식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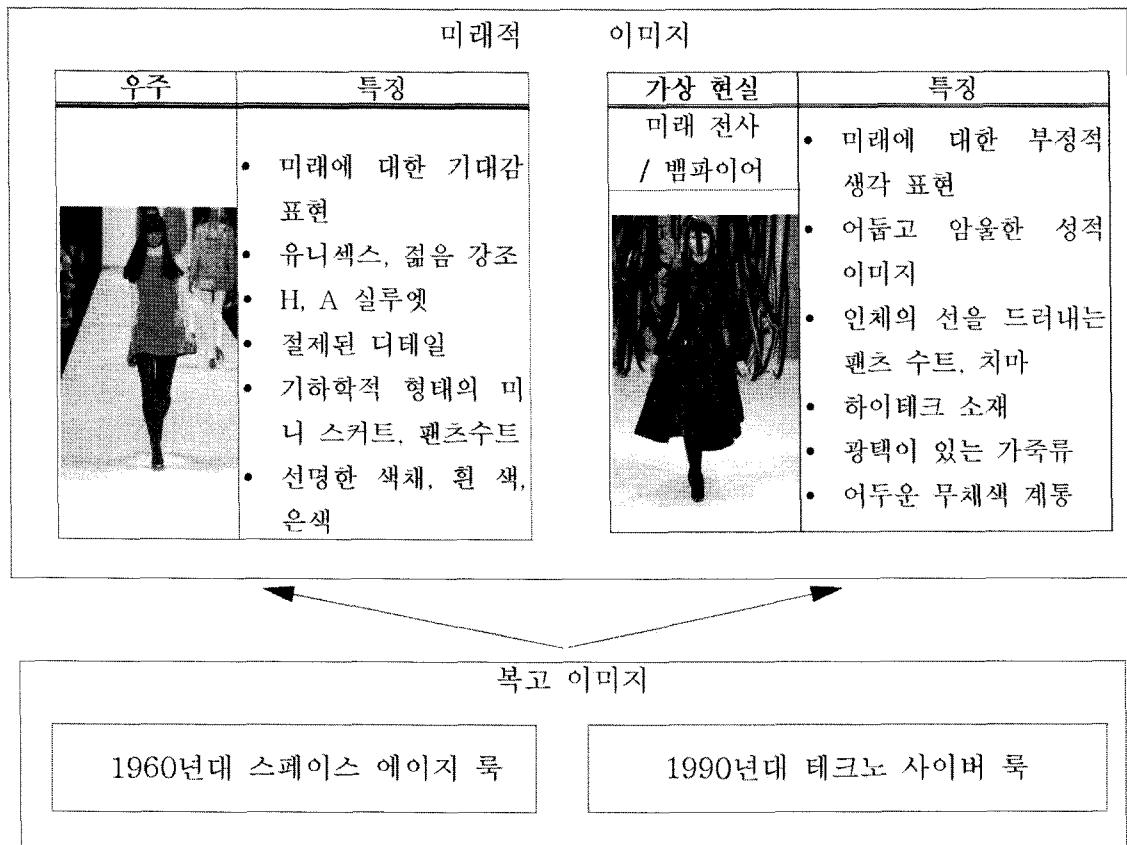
둘째, 2000년 이후 가상 현실의 이미지로, 미래 여전사 혹은 뱃파이어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미래적 이미지 패션에서는 인체의 선을 드러내는 팬츠 수트나, 인체를 노출하는 치마가 많았다. 하이테크 소재이거나, 광택이 있는 가죽류가 많이 사용되고, 검정색 등 어두운 색채가 많이 나타났다. 이는 1990대의 테크노 사이버 패션의 외적 형식과 유사하다.

셋째, 우주 이미지를 표현하는 경우, 유니섹스적인 짧음의 강조로 나타나고, 부정적이고, 암울한 분위기의 성적 이미지가 강조되는 경우에는 미래의 여전사나, 뱃파이어 이미지를 보여준다. 우주 이미지는 1960년대 당시 짧은이 문화의 일부로 유행되었던 유니섹스 룩의 재해석이라고 할 수 있으며, 미래의 여성 전사나, 뱃파이어 이미지의 표현에서는, 여성의 강한 면을 부각시키면서 여성성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미니 스커트가 미래적 이미지로 많이 등장하는 것은 1960년대 미래적 이미지의 우주복 스타일이 디자인되고 발표될 때에 미니 스커트가 1960년대의 일반적 유행 아이템이어서 미니 스커트와 미래적 우주 이미지가 결합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1960년대의 유행에서 영향을 받은 미니 스커트, 팬츠 수트 등의 절제되고 기하학적인 실루엣의 패션은 2000년에도 미래적 이미지 패션의 주 아이템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다섯째, 2000년 이후 가상 현실적 미래 이미지 패션은 2000년 이전의 테크노 사이버 패션에서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배경에는 중세 기사 이미지가 있다. 가상 현실 이미지 역시 우주적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미래적인 이미지를 표현한다고 하지만, 이미지의 근저에는 중세 이미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2000년 이후 나타난 우주 이미지 표현의 미래적 패션 이미지를 1960년대와 비교할 때 1960년대와 같이 우주 시대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복식의 형태, 색채, 재질 등의 디자인 요소는 1960년대의 디자인 요소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에는 더 이상 우주 시대 혹은 미래에 도래할 기술적 발달에 의한 신세계를 기대하면서 등장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1960년대의 패션이었던 우주복 패션, 미래적 이미지 패션의 이미지만을 차용하고 있을 뿐이다. 즉, 2000년대 이후 패션에서 표현되는 미래적 이미지에 있어서 1960년대 미래적 패션에서 볼 수 있었던 복식의 내적 의미는 찾을 수 없고, 그 외적 형식만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패션에 있어서 특정한 이미지나, 룩이 최초에 형성될 때에는 특정한 배경이나 내적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도표 2〉 2000년 이후 패션에서 나타나는 미래적 이미지의 개념

그것이 이미지로서만 계속 반복될 때에는 내적 의미는 상실한 채 외적 형식만이 반복됨을 보여주는 예가 될 것이다. 각 시기별 미래에 대한 관점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각 시기별 미래 이미지가 달리 표현되어야 하지만, 미래적 이미지 표현으로 인식되는 패션 이미지임에도 과거 패션을 참조한다는 점에서 역설적이다. 2000년 이후 패션에 나타난 미래적 이미지는 다양한 복합적 패션 트렌드의 등장 속에서 상반되는 두 이미지이자 트렌드인 하이 테크 이미지와 복고 이미지의 접점에 있는 패션 이미지라고 할 수 있겠다.

위의 내용들은 〈도표 2〉에 정리하였다.

III. 결론

2000년 이후 미래의 의미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다양한 매체에서 2007년 S/S 시즌 컬렉션의 미래주의적 경향을 해석하면서 이 경향을 1960년대 혹은 1980, 1990년대의 패션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패션의 미래적 이미지에 대한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미래적 이미지의 특성을 우주와 가상 현실로 도출하고, 2000년 이후 패션에 나타난 미래적 이미지에 대한 실증 자료 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2000년 이후 우주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미래적 패션의 실루엣은 디테일이 절제되는 미니멀한 형태로 H, A 실루엣이 많으며, 선명한 색채, 흰색,

은색이 사용된다. 2000년 이후 가상 현실의 이미지로, 미래 여전사 혹은 베파이어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미래적 이미지 패션에서는 인체의 선이 드러내는 팬츠 수트나, 치마가 많고, 하이테크 소재, 광택이 있는 가죽류를 사용하고, 검정색 등 어두운 색채가 많이 나타났다.

둘째, 우주의 이미지와 가상 현실의 이미지는 유니섹스의 짙음의 강조 혹은 성성의 강조에서 전체적인 이미지가 달리 연출됨을 알 수 있었다. 우주 이미지를 표현하는 경우, 유니섹스의 짙음의 강조로 나타나고, 미래의 여전사나, 베파이어 이미지를 표현하는 경우, 부정적이고, 암울한 분위기의 성적 이미지가 강조된다.

셋째, 2000년 이후 나타난 우주 이미지 표현의 미래적 패션은 1960년대의 스페이스 에이지 룩을, 가상 현실 이미지 표현의 미래적 패션은 1980, 1990년대의 테크노 사이비 패션의 이미지, 혹은 더 나아가 중세적 이미지를 차용하여 미래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이로서, 최근 미래적 이미지의 패션은 이 시대의 진정한 미래를 보여준다기 보다는 과거의 미래적 이미지를 참조한 하나의 미래적 이미지, 미래적 룩(look)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패션에서 나타나는 미래적 이미지의 다양한 배경 요인 가운데 1960년대, 1980년대, 1990년대의 미래적 패션 이미지와 비교함으로써 최근의 미래적 이미지 패션의 역설적 개념 구조를 밝히고자 하였으며, 추후 패션에 있어서 미래적 이미지의 통합적 개념 구조를 밝히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1) 삼성패션디자인연구소 자료, 자료검색일 2007. 10. 20, 자료출처 www.samsungdesign.net
- 2) 퍼스트뷰코리아 자료, 자료검색일 2007. 10. 20, 자료출처 www.firstviewkorea.com
- 3) (주)두산동아 사서편집국 (2000). 동아 새국어사전. 서울: (주)두산동아, p. 847.
- 4) 엘빈 토플러 지음, 김배산 옮김 (1982). 미래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종로서적, p. 238.
- 5) 크리스토프 칸토, 오딜 팔리우 (1977). 인간은 미래를 어떻게 상상해 왔는가. 김승욱 역. 서울: 자작나무, p. 15.
- 6) 위의 책, pp. 15-16.
- 7) 위의 책, pp. 36-37.
- 8) 위의 책, pp. 36-39.
- 9) 김예형, 조정미 (2003). 현대 패션의 미래적 이미지에 관한 연구. 복식, 53(1), p. 37.
- 10) 엘빈 토플러 지음, 김배산 옮김. 앞의 책, p. 163.
- 11) 자크 아탈리 지음, 이세욱 옮김 (2001). 합리적인 미 치광이. 서울: 중앙 M&B, p. 78.
- 12) 크리스토프 칸토, 오딜 팔리우, 앞의 책, pp. 21-22.
- 13) 위의 책, pp. 50-51.
- 14) 김성복 (1999). 20세기 패션 속에 나타난 미래 이미지의 역사. 한성대학교 논문집, pp. 53-80.
- 15) 김예형, 조정미, 앞의 책, pp. 35-48.
- 16) 박운정, 양숙희 (1998). 복식에 표현된 미래주의 양식과 그 변화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6(4), pp. 84-103.
- 17) 문신애, 김문숙 (1999). 20세기 스페이스 에이지 패션과 테크노-사이비 패션의 패러다임적 특성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7(6), pp. 170-181.
- 18) 지정은 (2006).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퓨처리즘의 디자인 특성과 트렌드 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 26-54.
- 19) Gerda Buxbaum (1999). *Icons of Fashion*. Munich: Prestel, p. 89.
- 20) Gertrud Lehnert (2000). *A History of Fashion*. Germany: Konemann, p. 68.
- 21) Gerda Buxbaum, *op. cit.*, p. 89.
- 22) Gertrud Lehnert, *op. cit.*, p. 68.
- 23) 잉그리트 로세크 지음, 이재원 옮김 (1998). 여성들은 다시 가슴을 높이기 시작했다. 서울: 한길아트, p. 381.
- 24) Gertrud Lehnert, *op. cit.*, p. 68.
- 25) Gerda Buxbaum, *op. cit.*, p. 89.
- 26) 김민자, 김윤희, 고현진, 이은희 (2000). 서양복식사 강의를 위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 연구. 자료검색 일 2007. 11. 20, 자료출처 <http://plaza.snu.ac.kr/~mkjk6847> 내 수록
- 27) 김민자, 김윤희, 고현진, 이은희. 앞의 책.
- 28) Gertrud Lehnert, *op. cit.*, p. 68.
- 29) 잉그리트 로세크 지음, 이재원 옮김. 앞의 책, p. 381.
- 30) 김민자, 김윤희, 고현진, 이은희. 앞의 책.
- 31) Gerda Buxbaum, *op. cit.*, p. 89.
- 32) 백영자, 김윤희 (2006). 서양복식문화.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pp. 391-392.
- 33) 김예형, 조정미, 앞의 책, p. 44.
- 34) Patrizia Calefato (1997). *Fashion and Worldness. Fashion Theory*, 1(1), p. 86을 박은경 (2002). 테크놀로지 아트와 테크놀로지 패션 이미지의 미적 특성에 관한 비교 연구. 복식, 26(6), p. 916에서 재인용.
- 35) 금기숙 외 9인 (2002). *현대패션100년*. 서울: 교문사, p. 297.
- 36) 문신애, 김문숙. 앞의 책, pp. 175-176.
- 37) Patrizia Calefato, *op. cit.*, p. 87을 박은경. 앞의 책, p. 916에서 재인용.

- 38) 2003년 F/W 마크 제이콥스, 자료검색일 2007. 11. 20,
자료출처 www.firstviewkorea.com
- 39) 2007년 S/S 랑방, 자료검색일 2007. 11. 20, 자료출처
www.style.com
- 40) 2007년 S/S 구찌, 자료검색일 2007. 11. 20, 자료출처
www.style.com
- 41) 2001년 S/S 트리스탄 웨버, 자료검색일 2007. 12. 29,
자료출처 www.style.com
- 42) 2007년 F/W 지안프랑코 폐레, 자료검색일 2007. 11.
20, 자료출처 www.style.com
- 43) 지정은, 앞의 책.
- 44) 한국 보그, 2003년 5월호
- 45) 디자이너 패션쇼 리뷰 자료, 자료검색일 2007. 12. 29,
자료출처 www.style.com
- 46) 2003년 F/W 루이 뷔통, 자료검색일 2007. 11. 22, 자
료출처 www.style.com
- 47) 2007년 F/W 가례쓰 푸, 자료검색일 2007. 12. 29, 자
료출처 www.style.com
- 48) 2003년 F/W 지안프랑코 폐레, 자료검색일 2007. 11. 22,
자료출처 www.style.com
- 49) 2002년 F/W 알렉산더 맥퀸, 자료검색일 2007. 11. 22,
자료출처 www.style.com
- 50) 2003년 F/W 라파엘 로페즈, 한국 보그, 2003년 5월호.
- 51) 한국 보그, 2003년 5월호.